



연간 보고서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20년



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레바논 자흐레 성 요한 자비의 식탁,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때문에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1년 전, 우리 모두의 삶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을 받고 있으리라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 여파는 우리의 걱정이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 규제들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ACN 사업 파트너들의 늘어난 지원 요청에서도 드러납니다.

이토록 어려운 시기일수록 항상 그래왔듯이, ACN과 고통받는 교

회 사이에 사랑과 신앙의 다리를 튼튼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공통된 사명을 지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ACN의 후원자분들입니다. 2020년 1분기에 잠시 주춤했던 기부금은 새롭게 다시 사랑의 정점으로 올라섰고, 여러분들 또한 어려움 속에 계셨음에도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관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ACN이 수천 가지의 사업을 통하여 사제, 수도자와 평신도들을 지원하여, 그들이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고 때로는 어쩌면 마지막으로 될

수도 있는 희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또한 여러분과 기도 안에서 함께 하기 위해, ACN은 지난 6월 11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에 첫 후원자의 날을 기념하였습니다. 감사 미사는 전 세계에서 봉헌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영적으로 친교를 나눌 수 있어 매우 기뻐합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여러분의 후원과 사랑이 전해진 곳

♥ 건설 지원 744건

전체 건설 사업의 3분의 1은 아프리카 지역에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성당과 사제관, 수도원, 사목 센터 및 신학교가 포함됩니다. 동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건설 지원 사업이 있었으며, 새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복구 및 개조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 미사예물 1,782,097회 지원

미사 약 180만 대, 이는 2020년 한 해 동안 세계 곳곳에서 18초마다 ACN 후원자 여러분의 지향으로 미사가 봉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ACN은 미사 예물을 통해 전 세계 사제 414,065명 가운데 9명 중 1명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지원한 지역은 아프리카로, 전체의 41.5%에 해당합니다.

♥ 신학생 14,009명 지원

ACN은 전 세계 신학생 115,880명 가운데 8명 중 1명을 지원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7,589명), 라틴 아메리카(2,384명), 아시아(2,097명) 순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제직을 지망하며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 개개인의 양성과 영적 성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수녀 18,126명 사도직 수행 및 훈련 지원

ACN은 2020년에 전 세계 여성 수도자 641,661명 가운데 35명 중 1명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2019년(47명 중 1명)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부분 수도자 및 수련자 양성과 활동 수도자 및 봉쇄 수도자들을 위해 생계를 지원했으며, 피정과 교육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 사목활동을 위한 운송수단 1,243건 지원

세부적으로는 자전거 783대, 자동차 280대, 오토바이 166대, 보트 11척, 버스 2대와 대형 트럭 1대를 지원했습니다. 2020년에도 다시금 대부분의 자동차와 자전거, 오토바이가 지원된 지역은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사업 401건 지원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ACN 또한 새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총 6,275,910유로(약 85억 원)로 401건의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진행했으며, 대부분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사제 및 수도자들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사업 별 사업 기금

- 건설 지원 26.7%
- 미사예물 지원 22.8%
- 평신도 신앙교육 지원 15.7%
- 난민구호 및 긴급 지원 9.8%
- 사제 및 수도자 양성 지원 8.2%
- 사목활동 위한 운송수단 지원 7.1%
- 여성 수도자 지원 6.2%
- 가톨릭 미디어 지원 1.9%
- 종교서적 및 출판 지원 1.6%

지원 지역 별 사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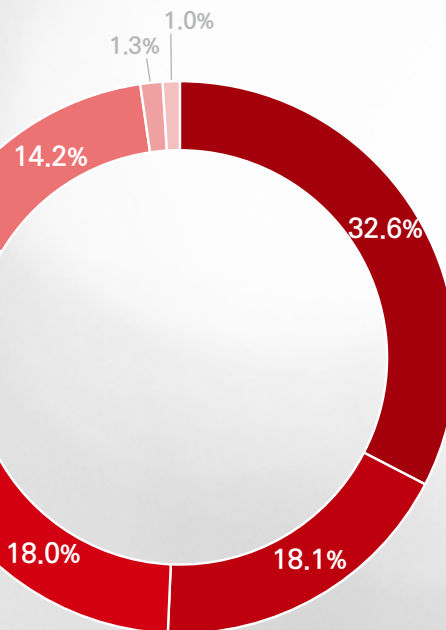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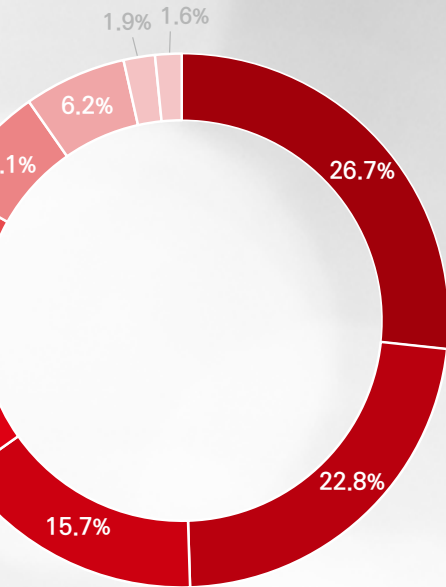
- 아프리카 32.6%
- 중부 및 동유럽 18.1%
-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18.0%
- 라틴 아메리카 14.8%
- 중동 14.2%
- 국제적 1.3%
- 서유럽 1.0%

사업 기금 사용 내역

전체 사업 기금 (1억 210만 유로)

- 사목활동 연계 지출 79.1% (8080만 유로)
- 행정(운영비) 8.4% (850만 유로)
- 모금 및 정보 활동 12.5% (1280만 유로)

2020년 한 해 동안 총 4,758건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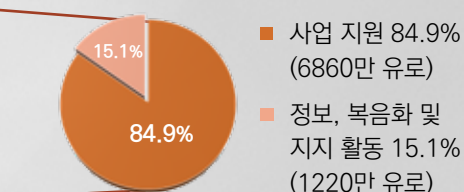
2020년에는 사업 수로는 2019년보다 472건 적게 지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ACN이 모든 사업을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많은 사업을 반려해야 했습니다. 총 1,432건이지만, 지원 요청 대비 비율을 보면, 2019년보다 적은 사업을 반려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는 ACN에 지원 요청이 들어온 사업이 모두 5,727건으로 전체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평균 지원 금액은 13,800유로(약 1863만 원)입니다. 규모가 가장 작은 사업으로는 어린이 성경 사업 중 포스터 지원이 있었으며, 가장 큰 사업은 시리아에 긴급구호 패키지를 지원한 것입니다.

ACN은 전 세계 138개국에서 1,145개 교구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교구 3,025개 가운데 3분의 1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ACN은 교리교사 18,000명과 다른 사목 활동 종사자들도 지원했습니다.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해당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장 많은 성경책과 종교 서적, 출판물 등을 지원했습니다.

기부금과 유산 증여를 통한 수입은 총 1억 2270만 유로(약 1656억 원)입니다. 이를 통해 ACN은 1억 210만 유로(약 1378억 원) 규모의 기금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도와주고 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피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2060만 유로(약 278억 원)는 2020년에 전달하지 못했지만, 2021년 상반기 지원 사업 기금으로 이미 할당되었습니다.

전체 사업 기금의 79.1%는 교회의 사명을 위한 사목활동 연계 지출로 이어졌습니다. 그중 84.9%로 ACN은 4,758건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코로나19 관련 사업으로, 630만 유로(약 85억 원) 가까이 지원했습니다. 사목활동 연계 지출의 나머지 15.1%는 세계 곳곳에서 박해받고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알리며 이들을 지지하는 활동에 사용되었습니다. 필수적인 행정 비용은 전체 지출의 8.4%이며, 나머지 12.5%는 모금 및 정보 활동에 지출되었습니다.

사목활동 연계 지출



2020년에도 유산 증여를 통한 수입은 2350만 유로(약 317억 원)로 다시 한번 ACN의 고통받는 교회를 위한 지원 사업 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고통받는 신앙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ACN은 세상을 떠나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 중에 기억합니다.

ACN 연간 보고서는 KPMG의 감사와 검토를 받았습니다. *환율: 1유로=약 1,350원 적용
2020년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CN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결과

◆ 전 세계 **23개국**에서

모금 활동을 위한 지부 운영

◆ 전체 후원자 **34만 5천 명** 이상

◆ 기부, 유산 증여 등을 통한 총 수입

122,674,982유로(약 **1656억 원**)

◆ 전 세계 **138개국**에서

ACN의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2020년 총 **4,758건**의 사업 지원

◆ 사업 기금의 **79.1%**가

사목활동 연계 지출



© Caritas Pakistan Faisalabad

코로나19 대유행과 하느님의 섭리

2020년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여행과 대면 접촉이 전 세계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교회교육과 공적 예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물질적인 결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일 봉헌금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는데, 많은 사제들에게, 특히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사제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생계 및 활동 자금이었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 온라인으로 미사를 봉헌했으며, 이로 인해 봉쇄 수녀원에서 만드는 제병도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학교 또한 문을 닫아 많은 여성 수도자들은 수입이 없었는데, 이들은 자신의 수입을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위해 써 왔습니다.

ACN은 미사 예물과 생계 지원으로 응답하며 사제들과 여성 수도자들을 도왔습니다. 미사 예물의 경우 지원 사업 별 예산 비율이 2019년 15.9%에서 2020년 22.8%까지 증가했습니다. 또한,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나 병든 이들을 계속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필수 개인 보호 장구(PPE) 및 마스크를 공급했습니다.

지원 사업의 변동은 ACN의 지원 지역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미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경우, 지원 지역 별 사업 비율이 2019년 29.6%에서 2020년 32.6%로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에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뿐만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슬람 극단주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중부 및 동유럽은 우크라이나의 여성 수도자 지원처



럼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그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원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니네베 평원의 재건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규제로 건설 자재들을 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ACN에 들어오는 지원 요청이 2019년 7,154건에서 2020년 5,727건으로 감소한 원인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습니다. ACN의 많은 사업 파트너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긴급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특히 건설 지원과 같은 기존 사업 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지원 요청은 대부분 2020년 하반기에 이루어졌는데, 그와 동시에 기부금 또한 증가했습니다. 실로 하느님 자비와 사랑의 섭리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2코린 9,15) 2020년에도 다시 한번, ACN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과 자애를 통해 세계 곳곳에 커다란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